

제 153 호

연중 제 31주일

1975. 11. 2.

쇼정이

발행인 김 종 택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③3498)

□ 장 문 □



“칼을 품은 어머니”

이 대 권 (바오로)

역사는 밝은 눈동자와 같으며 불의와 살인과 폭력을 응시할 수 없는 심판관이다. 이 역사를 지켜보는 심판관은 자모이신 교회이며 이 교회는 어머니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배를 저어 영원한 피안을 향하여 항해하고 있다. 이교회는 십자가를 앞세우고 가진 풍란을 격동하는 사회 현노를 말없이 헤쳐 나가고 있다. 오늘의 현실은 사상이 어둡고, 이념이 어둡고, 체제가 어둡고 하면서 활가 왕부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걱정없이 보이는 사람이 걱정이 더 많고, 잘사는 사람이 더 못사는 것을 자인하게 되는 역사의 심판이 입증되고 있다.

배린 사람은 다리를 움켜쥐고 잠을 자지만 맑은 사람은 다리를 쭉-펴고 달게 잠을 잔다. 어머니의 눈동자는 가슴에 칼을 품고 어지러운 현세를 눈 익혀 바라본다.

7월 7일-이것은 7월을 생각해 한다. 전우성과 직녀성이 서로 만나듯이! 그러나 기쁨의 만남이 아닌 7월 7일의 고통의 십자가의 만남이 어머니 눈동자에, 그리고 가슴에 상처를 주는 칼을 품은 고통이로다. 주님의 사도 지주교님의 7개월간의 고통, 우리교구 삼총사 세 신부님의 7일간의 고통, 이것이 바로 7월 7일 십자가의 신호등! 그리고 어머니이신 이교회의 슬픈 칼이었어! 우리는 성모님의 절고! 럭키 세븐은 모두 행운의 열세라고 기뻐한다. 행복이란, 고통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인류를 구속 시키려는 행운의 열쇠 즉 어머니께 잉태한 새 그리스도 상(像)이 이물 역사의 심판관으로서 증언한다. 어린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할 때, 이 아기는 장차 어머니 가슴에 슬픔의 칼을 품게 하겠다는 시메온의 예언! 그리고 이집트로 피난해야 할 천사의 예고!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길에서 만난 어머니의 가슴엔 말로 표현할수 없으리었다! 십자가에 사지를 못박는 그리스도 상(像)을 지켜보는 어머니! 최후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을 거두시는 자식의 숨결을 바라보는 어머니! 그 돌아갈 수 없는 시체를 부둥켜 안고 있는 어머니 가슴! 그 시체마저 땅속에 파묻고 우울한 심정에 잠긴 어머니의 자신엔 십자가칼이 도사리고 있구나! 오늘의 교회가 직면한 이 현상이 이미 인류 구속의 시초부터 주님의 제학에 의한 역사의 눈동자, 어머니를 통해서 칼을 품은 정의와 평화와 자유의 신을 구원시키려는 복음의 씨앗인 것이다 우리 모두 알찬 열매가 되려면 칼을 품은 어머니안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보속의 대가로 청춘을 불 살려 공동체내의 밑거름들이 되어야 하리라!

(전주 중앙성당 주임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가톨릭기도서 p 516

(1) 개회식

□입당송 예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듯이,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느님께서 예수와 함께 데려가시리라. 이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듯이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살게되리라.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 (요 19:1. 23-27. 경향잡지 p.82)
나의 구원자 살아계심을 나는 아노라

□창세기 ④야훼는 나의 복자, 아쉬울 것 없노라 야훼는 나의 복자 아쉬울 것 없노라/파아란 풀 밭에 이 몸 누여 주시고/고이쉬라 물터로 나를 끌어 주시니/내 영혼 싱싱하게 생기 돌아라④

□제2독서 (산도행전 10:34-43 성서 p.290)
그리스도는 산의 죽은 이의 판관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당신은 하늘나라의 신비를 어린이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5:1-12 성서 p.9)

너희가 받을 상금이 많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신자들의 기도

1. 주여! 마지막 말씀 한마디-“나는 이제 모든 것을 마쳤다” 주여,당신은 이 한 생명 다 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라. 온전하 성부께 봉헌하였오니 우리도 당신을 위한 목숨 다 바치도록 용기와 믿음과 희망을 주시도록 간절히 청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②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주여! 우리가 인간의 말을 다 할 수 있고 천사의 말을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울리는 꾀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꾀과리가 되지 않고, 진정 당신만을 그리고 이웃을 당신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③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3. 자애로우신 주여! 먼저가신 우리 조상들을 위하여 기도드라오니 굶어 살피시어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며 특별히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르오니 아무도 기억해 주는 이 없는 저들을 특별히 기억하시어 저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③

□영성체술 나는 부활이요 또한 생명이니, 나를 믿는 이는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이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쇼정이 산책



교우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
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재산목록

제 1 호

김 환 철 신부

“당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고 묻는다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자자의 처지에 따라 각각 다를 것이다. 의사들을 가진 과부의 대답은 아들이라 할 것이고, 근근히 모아 집을 한 채 겨우 구한 사람이라면 집이라 할 것이며, 노총각이 예쁜 색시 얻어 갖 장가 들었다면 아내라고 마땅히 대답할 것이다.

누가 날려려 묻는다면 나는 아내도 자식도 집도 없으니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이라고는 겨우 테레비...? 그것마저도 병들어 몇번 체널을 까닥거려야 나오는 테레비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나의 재산목록 제 1호라고나 할까?... 이렇고 보면 남이 나를 생각할 때 매우 처량하고 가련한 신세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아내나 전답이나 그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절대적인 것이라면 나는 결코 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장가들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없는 바가 아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천만금(千萬金)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신앙을 유산으로 받은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이 뭐라해도 내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열심한 부모님 슬하에서 신앙으로 자라는 것을 들 수 있겠다.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 순교 복자님들은 행여 이 신앙을 빼앗길세라 고이 간직하려다 부모도 재산도 명예도 결국엔 생명까지도 다 버려 무참히도 죽어갔을까?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 본다. “너희가 온 세상을 다 얻은들 너희 영혼에 해를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마테오 16장26절 ~)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까 걱정하지 말라,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의 의덕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보태서 주리라(루카 12장22 ~)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지만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자이니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 주시리라. (로마 8장5 ~)”

주여! 당신께서는 소위 지혜롭다는 자와 지식인들에게는 감추시고 세상의 약한자들, 멸시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자들에게는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셨으니 당신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자는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해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아쉬울 것 없이 오래 오래 당신 궁(宮)에서 살으리라.

(전통 천주교회 주임신부)

여기에 따스한 손길을

양 병 호

여기 초라한 삶의 호소가 있습니다. 엿갈린 삶의 뒤편에서 냉대받던 지난 날을 기억하며 주님 대전에 여생을 맡기고 이그러진 얼굴과 팔, 다리를 절충거리며 훗날의 기대속에 살아가는 초라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쉼정이의 도움속에 기대를 걸어 보는 삼례본당 관할 음성 나환자 정착촌의 익산 공소!

170여명의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자 그 모임의 집을 마련하려는 가난한 호소를 쉼정이는 몇 번인가를 소개된 바

그로 인하여 답지된 많은 성금은 주님사업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 무명의 이름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자체의 부담으로 이룩되어야 할 공소이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초라한 생이기에 마음만이 전부가 아닌 이 현실지에서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은 미역국 몇그릇을 놓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며 말구유에서 탄생으로 온 인류를 구원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의 즐거움을 보냈다는 그네들이고 보면 어찌 그 아픈 마음을 다 말할수 있으리요.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의욕과 투지로 그저 주님의 뜻에서 맡기고 살아 나가는 군상들!

그런데 그들의 모임의 집이 없습니다. 많은 세월이 앓아간 슬픈 가슴을 그곳에서 달래기 위한, 목마르게도 그리워지는 그러한 집이 없습니다.

이제는 의롭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 주님과 더불어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네들에게 모임의 집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공소 건립의 희망이 실현되는 그날 나환의 슬픈 역사는 따스한 손길속에 위안 받을 것입니다.

주여! 저들에게 공소 건립의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은총주소서.

저들에게 사랑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모든이의 마음을 녹여주소서.

저들의 의욕과 투지가 주 예수 당신께 기쁨과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펴시고자 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520 전주시 서노송동 601 가톨릭센타내
쉼정이 편집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천주교 신앙공소 회장
가톨릭 자조협회 상무

삼성 T.V 대리점

삼성전주센타

T.V, 냉장고, 전기용품 일괄

박영옥(누시아)

전주극장입구 전화 5893

서울 인류기술자 초빙 개업

A원양복점

교우 여러분에게는 인하 봉사

정읍 군청에서 성림극장 쪽으로

전화 998

황재평(베드루)

◎교형 여러분의 집◎

현대사진관

김낙준(요한)

오거리 한전 옆

전화 6289

□성년 순례 보고 ①□



잘 다녀왔습니다

한 상 갑

“사랑하는 전교사 여러분,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여러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책을 가졌는가?”

나는 특별히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반갑드리고 교황 강복을 한다.

여러분은 특별히 내 마음 안에 있다. 각자 자기나라에 이 기쁨을 전하기를 바란다”

지난 10월 15일 베드로 광장에서 있는 50여나라에서 온 전교지방의 교리교사 500여 명에게 내리신 교황님의 사랑에 잠긴 말씀이다.

성년을 기해서 전교지방의 교리교사를 특별히 초대해 주신 교황청의 뜻에 의하여 우리 한국에서도 10명의 교리교사가 영원한 도시 로마를 찾게 되었다. 전주 교구에서는 그 기쁨을, 정말로 영광스럽게도, 본인이 차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 주교님과 여러 신부님들, 그리고 교형 자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일전에서 수고하시는 전교사와 교리교사 여러분께는 죄스러운 마음조차 금할 길 없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있는 교황 알현시에 우리들은 먼저 떠났던 한국 순례단과도 만날 수 있었다. 각국의 순례단이 소개 될 때마다 따뜻한 미소로 사랑을 보여 주시던 교황께서는 한국 순례단이 소개될 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한 말씀 해주었다. —“기쁘다. 한국인가. 한국.”— 이 짙막한 한마디가 주는 기쁨과 감격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이 아니고는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다.

이날 광장에서 군산 월명동 본당의 배 데레사(금자)여사를 만났다. 다른 교구는 순례단도 많았고, 로마에 유학하시는 신부님도 있어서 외롭지는 않았지만(?) 전주교구에는 배여사 혼자이어서 서로 만났을때의 기쁨은 더 컸다. 또한 예기치 못하게 19일 주일미사에서 성체 수녀원 총장 박승애 수녀님을 만났다. 정말 반가웠다. 더 큰 기쁨은 주일 미사에 우리 가운데의 한사람인 김영호(청주교구 65세) 회장이 교황을 직접 알현하는 14명 가운데 끼었다는 사실이다.

우리 전교사 일행은 일주일간의 로마 일정을 마치고 이 리노 신부님(가톨릭 교리 신학 원장)의 안내로 현대의 성지 루르드까지 순례하고 만 2주간의 여행을 마쳤다.

지난 11일 출국하기전에 제대로 인사도 못올린 점 여러 어른들께 사과드리고 우선 안락 보고인사를 드리며, 그간 보고 느낀 일들 차츰 말씀드리기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심에 (119) 김병오



□ 신 간 안 내 □

구상 문학선

구상 저 2,000원

성 바오로 서원 (T@7398)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열 중앙시장동

(전화 ② 4577)

여섯 여러분에게 멋을 팝니다

세느의상실

최춘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뉴 명보제과 앞

전화 ③ 6219

※ 금성·삼성 제품 취급 ※

綜合電子

김종환(원선시오)

●팔달로변(舊 광주직행앞)

전화 ② 3332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 신자들의 집 ※

성심당 한약방

대지사진관(2층)

이상범(필노리아노)

육교열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② 6544

※교우들의 집단장은!※

동양페인트

현재 가격에서 10% 할인판매
(단 교우에 한함)

전주 뇌병원 옆

전화 ②2765·5986

* 교형 여러분의 집 *

스타사진관

장남수(바오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② 6094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먼저 가신 부모, 형제를 위하여 미사를 봉헌합시다

1. 오지리 부인회 장학생 선발
대상자: ①농과, 공과, 실업고등 전문학교 재학증명서 2통 ②가정 환경조사서 2통 ③사진 3×7cm 2개
지금까지 보조학생은 75년도로 마감하며 자세한 것은 주임 신부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 75년 11월 3일 오후 7시 30분 가톨릭센터에서
신, 구교 합동인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에 많은 분의 참석 바랍니다.
3. 전주교구 제 4지구 주일학교 제4차 성가 경연대회
결과 시상식이 지구장이신 김영일신부님으로부터 있었다
【독창】 1등: 김태선(중앙) 2등: 전지호(노송) 장미현(복자) 3등: 김종남(서학) 노현주(덕진)
한진례(중앙) 【합창】 1등: 전동, 2등: 중앙, 3등: 노송

☆경축에 연행되었던 3분 신부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열려 속에 건강하신 몸으로 무사히 나오셨습니다
3분 신부님께 계속 끊임없는 용기와 주님 은총 가득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중앙)

전화 ②2651
③3874주임 신부 이대권
보좌 신부 김동준
사도 회장 이상훈

1. 사도회 월례회(교문. 임원. 구역장, 반장 참석바람)
2. 방지거 삼회 월례회: 11월 3일 오후 2시30분
3. 성심 부녀회 월례회: 금요일 어머니 미사후
4. 꾸리아 월례회: 다음주
5. 미수된 교무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마당 공사 회사 하신분
소남섭, 엄정숙: 각 5,000 김옥순, 김화식, 박남주
: 각 3,000 이상신: 2,000 최정권, 임명애, 이정
님: 각 500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7. 436차 엠마루엘 Cell 공개: 11월2일 오후 1시30분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현
사도 회장 조해형

1. 사도회 성모회 월례회: 공식 미사 후
사도회 임원, 구역장, 공소회장, 반장님의 전원 참
석 바람
2.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주
3. 미납 교무금을 속히 완납합니다
4. 새 성당 의사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주제: 54,000원 누계: 560,730원
5.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강순도: 11,000원 누계: 4,171,627원
□신축 성미 <주제> 1말 <누계> 232말

(덕진)

전화 ② 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미납 교무금 속히 완납과 신년도 봉헌금 인입을 바
람
2. 제대 초 꽃 봉헌 하신분은 등록 바람(3. 6. 12. 24.
36 개월분)
3. 반 미사 일정 (오후 7시 30분)
덕진 4. 7반: 3일 이성원백 금암 1반: 4일 송정원백
판북 1. 2반: 5일 김동준백, 판북 3반(발통거) 6일
전주제지 사태: 7일
5. 신용조합 임원 회합: 11월5일 오후 5시30분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복자)

전화 ② 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호

1. 반회합 제5반 11월11일(화) 반장 봉영숙 장소 반
장백(다3가) 반원: 정인숙, 최점순, 김수점, 소진순
조금신, 김정배, 김포단, 이수련, 김희순, 박완기,
박진숙, 이계복 6반 11월 12일(수) 반장: 임귀
일 장소 반장백(다1, 2가 완산동) 반원: 이상기, 진
필선, 유복성, 박옥란, 김제춘, 장명숙, 윤은희, 박
향옥, 최영림, 윤명자, 최용구, 정복래, 이정용, 최
영근 7반 11월 13일(목) 반장 홍명선 장소 반장
백(중앙동) 반원: 김태복, 박애자, 한명숙, 임봉래
전정순, 이옥래, 김분경, 유기순, 임옥자
8반 11월14일(금) 반장 장세리아 장소 반장백
(중앙동) 반원: 양영자, 이순이, 이복주, 은정자,
문상래, 최옥기, 이승호, 김준례, 최형애, 김연녀,
김영자
매일 저녁 8시-8시반 가정방문, 8시반-9시반 반회
합 지참물 신약성서, 반수첩 (성가집용) 연필 빠집
없이 참석 바람
2. 복자 성우회 정기총회: 다음주일 공식미사후 송광사

(서학동)

전화 ②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박장춘

1. 재경 위원회: 오늘 밤 미사후
2. 불사위원회: 다음주 저녁 미사후
3. 오늘은 애령회 주일입니다
4. 상판 사도회 애령의날: 다음주

(전동)

전화 ② 3222

주임 신부 김한철
보좌 신부 한윤도
사도 회장 양윤도

1. 성지 순례단 출발: 오늘 오전 8시 전주역
나바위 김대진 신부님 유적을 찾아서
2. 사도회 상임위원회: 월요일 저녁 8시
3. 유아세례: 다음주 2시 미사후
4. 성화회 월례회: 오늘 나바위 성당에서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본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창제 안류 수신태인 정	사도회 임원회 나양순양 주일학교 시청자 기증 사우회	4,740원 20,700원 5,390원	제 3 지구	주현동 창인동 황 등	위령성월을 뜻있게 보냅니다. 첫 영성제 하신분께 감사 드립니다. 사도회, 성모회	45,645원 원 4,150원
		사도회 월례회 사도회 총회	3,270원 22,886원				
제 2 지구	대문울동 월명동 중 열	전교자 가입 38명께 감사 드립니다 사도회, 성심회, 학생회 사도회 월례회 사도회, 요셉회, 구역장회의, 청년회 사도회 상임 위원회 모임	3,820원 35,730원 25,345원 14,710원 13,950원	제 4 지구	더 복 서 학 동 동	제대 및 초 봉헌 신청바람 반 회합 실시 재경위원회, 봉사위원 회합 사도회 상임 위원회	원 18,085원 13,880원 56,710원
제 3 지구	고금여 산산산	사도회 월례회 사도회 월례회	2,450원 12,695원	제 5 · 6 지구	무장진남순 입	사도회 임원회의 사도회, 학생회, 데레사회 공식미사 전 10분간 성가연습	3,440원 원 3,100원 13,435원 원 3,000원